

01 교회소식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기 때 큰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른 연주자의 꿈을 키워가는 성령 충만한 만민의 학생.

02 생명의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배려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다. 무례함이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곧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03 기획특집

“은사집회 통해 치료받았어요!”

지난 1월 금요철야예배 2부 은사집회 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문정주 성도의 간증을 들어본다.

04 간증

나의 반석이신 주님~

만민의 양 떼가 된 뒤 영육 간에 축복이 넘치는 인도네시아 파트리샤 집사와 태중에서 화해 농사를 지킴 받은 일본 공옥자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77호 2019년 2월 2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건강과 축복 주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혜나 자매(18세)

저는 어려서부터 관심사가 많아 장래희망도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는 하나님께 진로를 형통하게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악기를 전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닛시오케스트라 단원인 어머니(이정아 권사)와 주변 분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생 불구나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로 치료받아

사실 저는 생후 4개월 때 '화농성 고관절 염증'이라는 질병으로 엉덩이뼈와 허벅지뼈가 연결되는 부위에 고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린아이에게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이 참 희귀한 일이라며, 고름이 피를 타고 몸 전체를 돌면 패혈증으로 일주일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수술하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어렸고, 설령 수술을 한다고 해도 고관절에 이상이 생겨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18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였지요.

하나님 은혜로 6개월 준비 만에 예고에 합격하여

2017년 5월,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호른을 전공

하는 것으로 진로를 정했지만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기였습니다. 2년 이상 걸려 해야 할 일을 6개월 안에 해내야 했지요. 제게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게 기적을 바란다고 말했지요.

저는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 은혜로 합격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낙심될 때에는 인사드릴 때마다 응원해 주시는 당회장님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곤 하였지요. 그 결과 그해 겨울, 경기예술고등학교 음악과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로도 바쁜 날들은 이어졌습니다. 다음 목표인 대학 입시를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개인 연습이 많이 필요했고, 학교에서는 실기나 연주회, 학업 등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해를 보내고 2019년 새해가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일예배 만이 아니라 금요철야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 등을 참석해 교회에 가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금요철야예배에 갔는데, 2부 찬양과 기도 시간이 얼마나 뜨겁고 흥

만하던지 마치 제가 아르키메데스가 된 것 마냥 유레카를 외치며 온 교회를 달리고픈 느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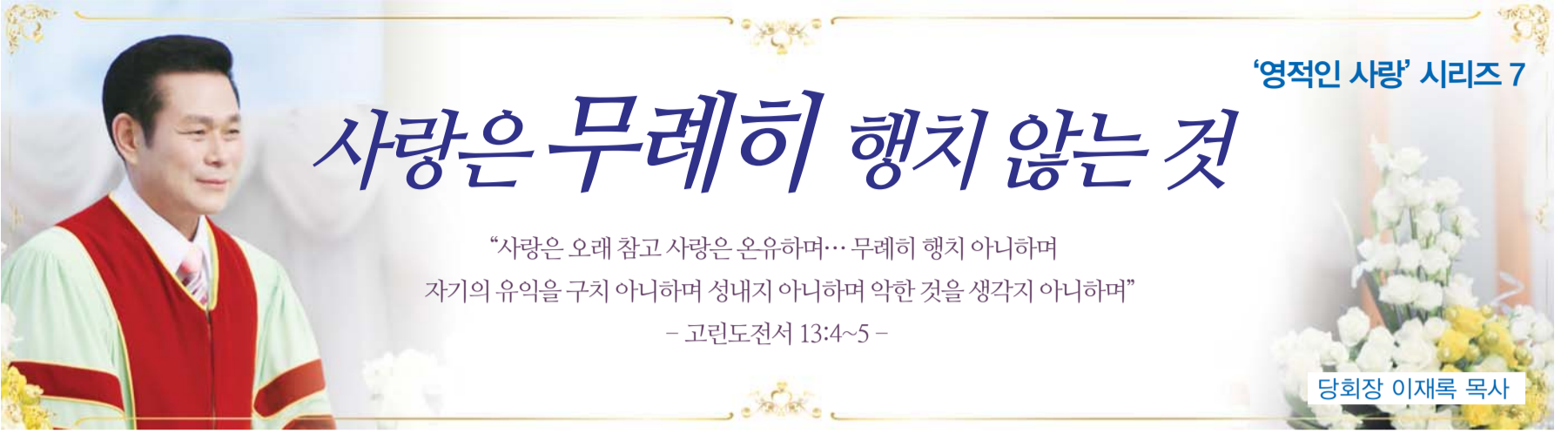
감동의 금요철야예배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제 영혼이 성령 충만해지니 몸이 고단한 줄도 몰랐지요.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뜨겁게 온몸으로 찬양하니 ‘그래, 이게 바로 만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한 가족이라는 말이 마음 깊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편으로는 원수 마귀 사단과 대적해 맞서 싸우는 하나의 큰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요즈음 제게는 금요철야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물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하지요. 대학 입시를 위한 연습과 학업에 지친 저를 바람을 맞으며 시원하게 달리고 어디든 갈 수 있게 해 주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또한 저를 은혜 깊은 까치가 되게 해 줍니다. 어릴 적에 큰 질병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건강한 두 다리와 두 손바닥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으니깐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되새기며 저의 고백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부를 때면 큰 감동이 됩니다.

평생 불구나 살거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치료해 주시고, 호른 연주로 특별하게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랑’ 시리즈 7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 고린도전서 13:4~5 -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매너(Manner)나 에티켓(Etiquette)이란 사람의 몸가짐과 행동방식, 태도나 예절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에티켓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사회적 불문율이라면, 매너는 에티켓을 얼마나 적절히 표현하는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바른 몸가짐과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행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요. 더구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인사법이나 대화법 등 나라나 시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게 마련이지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무례히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지요. 허물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것이 예의 없는 행동으로 나오거나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진정 사랑이 있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값비싼 보석이 있다면 매우 귀중히 다룰 것입니다. 하물며 진정 상대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소중히 대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무례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례한 경우와 사람에게 무례한 경우입니다.

1.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경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정작 그 말과 행실을 보면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것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상사 앞에서 조는 것도 무례한 일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탄생각을 하는 것도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이런 행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의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말해 주지요.

설교자 또한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나?’ 하며 염려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뿐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예배 도중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물론 예배를 돕는 사명 때문에 나가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끝까지 자리에 앉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묵도나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까지 모든 순서를 마음 다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찬양이나 기도는 물론 헌금이나 광고 시간에도 집중해서 정성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식적인 예배 외에 찬양예배, 구역예배 등도 동일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하지요. 정성껏 예배드리려면 무엇보다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항상 먼저 기다리고 계시므로 우리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밖에도 술, 담배를 하고 예배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어린 자녀들이 떠들고 장난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예배 시간에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무례한 일입니다.

예배를 위한 몸가짐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 그대로 아무렇게나 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복장은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알기에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수요일예배나 금요일예배는 직장에서 바로 오는 경우가 많기에 작업복 차림으로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무례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든 예배에 참석하려는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간혹 다급한 일로 기도하는 사람을 툭툭 쳐서 기도를 중단시키거나,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고 기도를 곧바로 멈추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끝내는 무례함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번번이 무례를 범한다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겨 질병, 사고 등 갖가지 문제를 만나거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2.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시 11:4). 구약 시대에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으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 안쪽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일년에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오늘날은 주님의 은혜로 누구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히 10:19).

성전이란 예배를 드리는 곳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속한 마당과 부속 시설 등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전 어디에서든지 말과 행동 하나도 주의해야 하지요. 큰 소리로 다툰다든지, 사업이나 오락 등 세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물을 함부로 다루어 상하게 하거나 낭비해서도 안 되며, 헌금봉투 하나라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되지요.

더욱이 성전 안에서 매매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상인들의 상을 없으셨습니다. 제사에 쓰일 제물이라도 용납지 않으셨으니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매매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 마당에서 바자회를 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지요.

성전의 모든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모임을 갖는 경우, 성전의 거룩함에 대해 자칫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면 무례히 행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3.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경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무례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다 보니 무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밤늦게 전화한다거나 바쁜 사람에게 전화해서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또 약속 시간에 늦는 것, 남의 집에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것도 무례한 일입니다.

간혹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인데 일일이 따지는 것은 오히려 정감이 없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허물없는 사이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백 퍼센트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내 편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다를 수 있지요. 그러므로 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가깝고 편한 사이일수록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 해서 말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여 상처를 주는 일도 많고, 가족 또는 절친한 친구에게 무례히 대하다 보면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해서 무례하게 대해 쉽게 반말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명령하는 태도로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부모나 스승, 연로하신 분 등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에게도 중심

에서 섬기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세대가 변해 어쩔 수 없다 말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이 있지요.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너는 선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 사이에도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니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서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침을 뱉거나 교통 법규를 어긴다면 이는 많은 사람에게 무례한 것이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말과 행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4. 모든 기준이 되는 사랑의 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고 식사하거나 일을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도 많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배움과 지식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 삼아야 무례히 행치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고 행해 나가는 만큼 그리스도의 교양을

갖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의 법에 담긴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배려'입니다. 깜깜한 밤에 사람이 등불을 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주 오던 행인이 보니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이 그에게 물었지요.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자 그는 “당신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등불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반면 무례함이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으니 늘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마음으로 영적인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경색을 치료받아 휠체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문창주 성도(78세)



저는 오랫동안 뇌경색을 앓던 중 2017년 7월, 중국에서 뇌동경맥 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마비가 더욱 심해져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는 딸(문서영 성도)의 권유로, 저는 집에 누워 반년 동안 GCN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딸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한국에서 열리는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전체 환자기도를 해 주실 때 놀랍게도 굳었던 오른팔을 들 수 있게 되었지요.

하계수련회를 다녀온 뒤에는 몸이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한 지 이틀 만에 휠체

어에서 일어났고, 3일째에는 지팡이를 쥐고 걸을 수 있었지요. 또한 오른손으로 글씨도 쓰고, 아직은 어눌하지만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대고 계심을 느낀 저는 2018년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였고, 그러면서 고혈압과 심근경색도 치료받았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2019년 1월 17일, 은사집회를 사모하며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던 중 입이 비틀어져 침을 흘리고 어눌했던 증상도 사라졌지요.

마침내 1월 25일 금요일야 2부 은사집회 시에는 이수진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지팡이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신불수로 살아야만 했던 제가 이처럼 다시 걸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온전케 해 주실 좋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과 치료, 저희 가족은 권능의 산 증인들입니다”

파트리샤 집사(40세, 인도네시아)

저의 고향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곳에서 한 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만민의 양 떼가 되 었지요. 2014년 8월, 한국에 정착하면서 뜨거

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지만, 기도를 쉬게 되고 주일마저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매주 단에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겼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사랑과 축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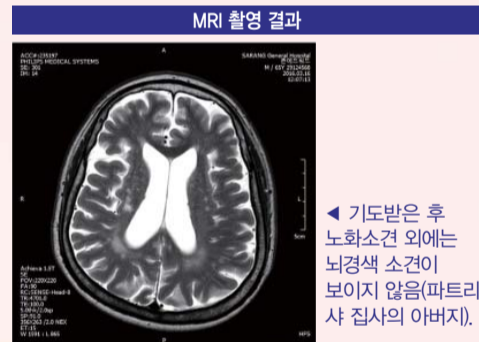
데 2016년 2월, 한국에 오셔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 치료되어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친정어머니도 2015년 8월,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유방근종 수술 후유증을 치료받으셨고, 2017년 5월에는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이었는데, 아버지가 휴대폰으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들려주심으로 의식을 회복하시고 건강을 되찾으셨지요.

2018년 3월에는 딸 은혜가 고열과 복통, 반점 등의 증상이 있어 병

원 진단을 받으니 HSP(알레르기성 자반증) 혈관염이었습니다. 콩팥으로 전이되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시공을 초월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 신속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영혼도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MRI 촬영 결과

기도받은 후 뇌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음(파트리샤 집사의 아버지).

온전한 주일성수를 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6년 11월, 면세점에서 일하던 제게 한 여행사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가 온 것입니다. 저는 여행 사업에 문외한인데 말입니다. 그 다음 달부터 여행사에 출근하게 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때를 좇아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

다. 그러자 최고 판매자 상을 받는다 하면 평사에서 두 달 만에 대리가 되고, 이후 회사의 매출이 80%나 성장하게 되어 과장으로 승진하였지요. 2018년 11월에는 다른 여행사 차장으로 스카우트되면서 더 크게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였지요. 친정아버지는 2013년 1월, 왼쪽 편마비가 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왼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주님 은혜로, 태풍에서 지킴 받고 축복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공옥자 집사(62세, 일본)

2004년 12월, 개인적인 일로

한국민단에 갔다가 그곳에서 주재규 장로님의 전도를 받았습니



다. 장로님은 제게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와 필리핀 연합대성회 DVD를 전해 주

셨는데, DVD 안에는 강사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지요. 저도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했기에 치료받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수차례 되돌려 보며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고 결국 치료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 저는 야마가타만민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참 따뜻한 교회였지요.

저는 남편과 함께 화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사진). 처음 이 일을 할 때만 해도 경험이 없어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신앙생활을 한 뒤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과정을 행통하게 해 주시니 동종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가장 좋은 품질의 꽃을 재배해 축복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6월부터 비닐하우스 한 동에 백합 2,000개를 한 주씩 걸러 세 동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수확하려면 일주일 단위로 하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동시에 꽃이 핀 것입니다. 화훼 농사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대부분 출하하고 100개의 수확을 앞둔 9월, 일본에 25년 만에 강력한 태풍이 임해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공항이 폐쇄될 정도였습니다. 주변 비닐하우스들도 큰 피해를 입었지요. 그런데 저희는 온전히 지킴 받아 100% 출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왜 꽃이 한꺼번에 빨리 피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태풍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 농사를 지켜주 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2월에는 눈 길 위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늑골 골절이 왔지만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믿음으로 가슴에 얹고 기도함으로 치료받았지요. 예전에는 걱정근심으로 힘든 날들이 많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부터는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범사에 믿음으로 행할 때 응답받고 축복받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 167-82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서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서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용봉로176번길 62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분당지성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 3층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대로 22, 은성빌딩 3층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일산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